

거장 '조르주 루오' 예술세계·작품들 이야기로 만난다

전남도립미술관, '루오' 특별전 연계 관람객 중심 프로그램 마련 12월 이다도시·서경석·조영남 토크콘서트...티켓 증정 이벤트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열리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2023년 1월 29일까지)은 종교화의 대가이자 "깊이 패인 주름 속에 고통을 겪는 자들의 말없는 친구"이고자 했던, 20세기 예술 거장 조르주 루오(프랑스·1871-1958)의 예술과 삶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파리 국립퐁피두센터, 조르주 루오재단 소장작에서 엄선한 작품 200여 점을 만난다. 유화, 드로잉, 스테인드글라스, 도자기, 타피스트리 등 그의 전 생애를 망라한 작품으로 원색의 화려한 색감과 두터운 마티에르, 굵은 선면 등 루오 작품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명작들이다.

58점의 판화 연작 '미제레레(Miserere)' '루드 밀라', '베로니카' 등의 대표작품과 그가 평생을 두고 작업했던 광대와 베에오를 소재로 한 '무지개 곡마단의 소녀 마술사', '어린 베에로'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또 연계 전시인 '조르주 루오와 한국 미술:시선 공명'에서는 이종섭·구본웅·한복·이봉상 등 23명 작가의 작품 40여점을 만난다.

중반으로 접어든 '조르주 루오'전을 좀 더 흥미로운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뮤지엄 오디세이'는 특별전과 연계한 관람객 중심형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거장의 예술세계와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다.

오는 12월11일(오후 3시) 미술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봉즈루 루오'는 프랑스 거장 예술가의 이야기를 프랑스인에게 듣는 기획이다. 초청 강사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 이다도시. 그는 서거 당시 프랑스 국장이 거행됐던 루오의 삶과 정신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예술사적 가치를 테마로 대중적 관점에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예정이다.

두 차례 열리는 '천상의 컬렉션' (18일 오후 3시, 1월8일 오후3시)은 개그맨이자 방송인 서경석이 진행한다. 서울대 불문과 출신으로 문화재 배틀쇼 'KBS-천상의 컬렉션' 진행자로도 활동한 서경석은 인간의 고귀함을 담은 루오 미술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그 예술작품의 소중한 가치를 재미있는 입담으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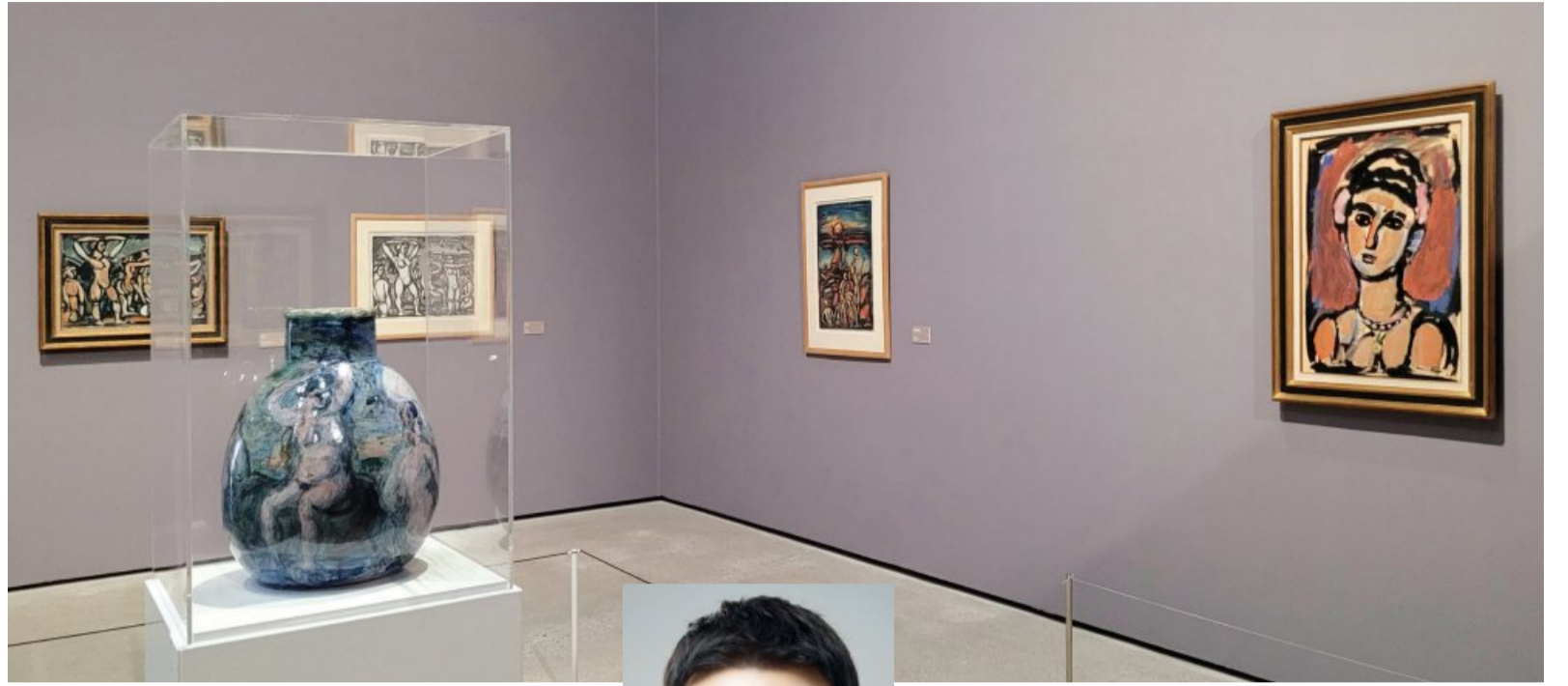
올해의 마지막날인 31일(오후 3시) 열리는 '명작 스캔들'은 가수이자 화가로 활동중인 조영남을 초청, 미술강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토크쇼로 진행한다. 루오 작품 소재의 창작과 개념, 독창적 작품성의 위대함을 직설적으로 풀어보는 버라이어티 쇼로 루오의 실험적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뮤지엄 오디세이'는 루오특별전 관람객에 한해 사전예약(선착순 200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미술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와글와글미술관'은 특별전과 연계한 가족중심형 행사 프로그램이다.

12월 17-18일(오후 2시-5시) 미술관 잔디 광장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미술관 오픈마켓'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아트 플라마켓으로 광장에서 제작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판매한다. 또 17일 오후 2시에는 미술관 버스킹 스테이지 공연을 진행한다.

24-25일(오후 1시-5시)에는 성탄절 특별행사 '루오할아버지&크리스마스'가 전시관에서 열린다. 명화 페이스 페인팅, 사랑 캘리그래피, 산타클로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전 모습.

무료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12월 한 달간 진행한다. SNS 리뷰 이벤트 '루오 보고 인스타 올리고 선물 받자'다. @jeonnammuseumofart를 팔로우 한 후 전시관람 사진을 촬영해 @태그와 함께 사진 및 전시 후기를 업로드하면 된다. 당첨자 100명을 선정해 초대권 2매, 또는 소도록 1권을 증정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경석



이다도시



조영남

'이것이 재즈다!'

12월8~9일 북구문화센터...앤디킴 트리오·김국주 밴드 등 무대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재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 마련됐다.

북구문화센터는 특별기획공연 '이것이 재즈다!'를 12월 8일과 9일 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무대에 오를 이들은 '앤디킴 트리오'와 '김국주 밴드'로 재즈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느낌의 두 밴드를 통해 재즈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를 느껴 볼 수 있다.

먼저 첫날인 8일에는 앤디킴 트리오가 함께한다. 앤디킴 트리오의 전통 재즈의 본질을 지키며 포스트 밥 기반의 모던 재즈를 추구하는 그룹으로, 시카고 종합 예술대학을 재즈 학사 졸업한 뒤 '블루의 명곡'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트 앤디킴을 주축으로 베이스 김인영, 드럼 김성화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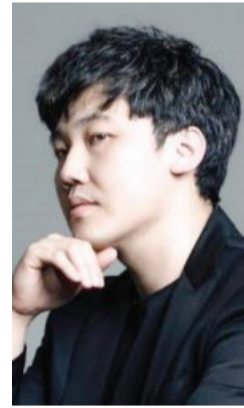
이들은 미국 재즈의 시작과 현재를 관객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등 흥미로운 무대를 지어낸다. 이날 선보이는 곡은 'New Composition', 'Sonnymoon for Two' 등 9곡이다.

9일에는 4인조 쿼텟 탱고밴드인 '김국주 밴드'가 무대에 오른다.

반도네온 김국주는 첼로를 전공,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반도네온 수업을 받은 후 귀국해 밴드를 결성했다. 김국주는 2018 클래식 상들리에 서촌공간 '반도네온 김국주 X 바이올린 이소란'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오월어머니의 노래 앨범 발표 콘서트 세션에도 참여했다. 밴드는 반도네온 김국주, 비브라폰 김유



앤디킴



김국주

양, 콘트라베이스 팍다미, 피아노 위조연으로 구성됐다.

밴드는 이날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거리의 탱고', 줄리안 플라자의 '늑탄' 등 12곡을 연주한다.

8세 이상 관람이며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관람료 1만 원. 문의 062-410-8367.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5·18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연습하고 있는 모습.

그때 그 시절 '민중가요'

5·18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12월5일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80년 오월 광주와 다양한 나라의 민중가요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제2회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12월 5일 오후 7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창단연주회로 첫 선을 보인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 다채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다. 적게는 초등학교 2학년생부터 많게는 중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초청연주, 5·18 기억공간과 함께하는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 가을 연주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주최하고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광구근의 사회로 진행된다.

무대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인 이현동 지휘자가 공연 지휘를 맡고 바리톤 노시내와 피아니스트 서승연, 타악에 김기수가 함께한다.

이날 공연에는 지난 2020년 나주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창단한 나주시민합창단이 함께

한다. 합창 지휘에는 합창단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정 지휘자가 오른다.

먼저 '어린음악대', '달맞이', '자전거', '오빠생각', '우리의 소원' 등 동요 메들리로 무대를 열고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이자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을 선보인다.

이어 5·18 당시 광주일보 취재기자였던 류상수씨가 40여년간 가슴에 묻어둔 아픔과 고통을 담아 작사·작곡한 '5월의 연가'를 바리톤 노시내가 노래한다. 다음으로 독립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곡을 루디벨리가 편곡해 미국 북동부 대학에서 많이 불려진 '우정의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

나주시민합창단은 민중가요인 '아침이슬'과 1832년 프랑스 민중혁명을 배경으로 한 '레미제라블' 중 '민중의 노래'를 노래한다.

뒤이어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과 브람스, 베토벤 '환희의 송가' 등이 포함된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이뤄진 클래식 메들리가 펼쳐지고 요한스트라우스 1세에 의해 작곡돼 북부 이탈리아 독립운동을 진압한 오스트리아 장군 라데츠키의 이름을 딴 곡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막을 내린다.

전석초대.010-3606-3663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선대미술관, 월아미술상 수상작가 '박유원·채수진展' 12월2일까지

월아미술상 수상작가 전시회가 오는 12월2일까지 조선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린다.

월아미술상은 조선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월아 양계남 명예교수가 대학 한국화 전공 재학생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위해 매 해마다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상이다. 지난 2004년 제정 후 올해 19회를 맞았다.

올해는 채수진·박유원 두 명의 작가가 선정돼 전시회를 갖는다.

채수진 작가는 흑과 백, 수묵화의 매력에 담긴 작

품을 선보인다. 그가 화폭에 풀어놓는 이야기는 환상적인 꿈의 이야기로 인물이 전면에 등장한다. 또 바닷가 풍경을 세세히 묘사한 작품 '정적', 현대인의 이야기를 담은 '랜선연기' 등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채수진 작가는 전남도미술대전에서 특상을 수상했다.

박유원 작가는 다양한 색감이 돋보이는 수묵채색화 작품을 선보인다. 세필로 세심하게 그려낸 풍광들은 마치 수채화 풍경을 보는 것처럼 담백하다. '변하지 않은 곳', '편안한 휴일' 등은 농촌의 일상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이다. 박 작가는 한국화 특강전과 전남도미술대전에서 특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입선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유원 작 '누구에게는 안식'



채수진 작 '꿈 2'